Stock Angle SHORT

2026-04-16 · Conviction ●●●●○ · HIGH

Verdict

Winning Hypothesis: 시장 내러티브가 옳다. 현재 S&P500 과 나스닥의 최고치 경신은 '고용 없는 회복'이 아닌 'AI 주도 생산성 혁명'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의 시작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연준의 금리 동결과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은 일시적인 관망세일 뿐,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호조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을 상쇄하고 있다. 실물 경제 데이터 (INDPRO, ICSA) 가 견조한 것은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님을 증명하며,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실질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Soft Landing' 시나리오가 실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장의 강세 흐름은 데이터의 지연이 아닌,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가격 발견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호조, 그리고 AI 주도 생산성 혁명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S&P500 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회복'이 아닌 'Soft Landing' 시나리오가 실현되고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협상 재개로 소멸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판정 (가설 B) 에서 제시된 '고용 없는 침체' 전환 시나리오와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실질 금리 상승' 우려는 현재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에 의해 구체적으로 반박되었습니다. 첫째, 가설 B 의 핵심 붕괴 조건인 WTI 유가 100 달러 상회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WTI 가 91.39 달러로 1 개월간 -5.01% 하락하여 에너지 가격 안정 내러티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둘째, T10Y2Y 국채 스프레드가 0.53bp 로 양수 구간을 유지하며 역전 (Inversion) 이 발생하지 않아 경기 침체 신호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NDX 와 US10Y 간의 상관관계 (Beta) 가 -0.0001 로 거의 0 에 가까워, 금리 상승이 성장주에 치명타를 입히는 가설 B 의 논리가 현재 데이터상 약화되었습니다. SPX 가 7022.95 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VIX 가 -18.78% 하락한 것은 시장이 AI 테마와 실물 경제의 견조함 (INDPRO 102.551) 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직전 판정의 무효화 조건 (기술주 랠리가 실물 지표와 괴리를 해소) 이 충족되었으며, 새로운 증거는 가설 A 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Action: SPX 비중 확대 및 NDX 적극 매수

Invalidation: WTI 유가가 2 주 연속 100 달러를 상회할 경우

Risk Factors: (매크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급격한 확대 및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부추김 우려, (기술적/포지셔닝) AI 테마 주도 상승에 따른 과매수 구간 진입 및 시장 포지셔닝의 과도한 일방향성, (이벤트)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나 예상치 못한 고용 지표 악화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View Change: 직전 판정 (가설 B) 에서 제시된 무효화 조건인 'NDX 1M Return이 2 주 내로 6.5% 이상 추가 상승하며 기술주 랠리가 실물 경제 지표와 괴리를 해소'하는 상황이 현재 데이터 (SPX 7022.95 최고치 경신, VIX 하락, WTI 하락) 에 의해 충족되었습니다. 또한, 가설 B 의 핵심 전제였던 '금리 스프레드 역전'과 '유가 급등'이 발생하지 않아 (T10Y2Y 0.53, WTI 91.39), 이전 판단의 근거가 무효화되었습니다.

Macro Picture

Regime: expansion
Key Themes: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 실적 중심의 업종 차별화

Dominant Narrative: 시장 참여자들은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호조로 S&P500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 흐름을 주도하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회복' 우려가 금리 인하 시점 지연을 예상하게 하고 있음. 특히 나스닥 2% 상승과 코스피 6000선 안착은 기업 실적과 AI 테마가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Reality: 실물 경제는 2026년 2월 기준 산업생산지수 (INDPRO) 가 102.551 수준으로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으나, 4월 4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ICSA) 가 21.9만 건으로 고용 시장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만, 10년-2 년 국채 스프레드 (T10Y2Y) 가 0.53% 로 양의 구간을 유지하며 경기 침체 신호는 명확하지 않으나, 연준의 관망세와 중동 분쟁 리스크로 인해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딤을 시사하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음.

Hypotheses

A (Market Right)

시장 내러티브가 옳다. 현재 S&P500 과 나스닥의 최고치 경신은 '고용 없는 회복'이 아닌 'AI 주도 생산성 혁명'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의 시작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연준의 금리 동결과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은 일시적인 관망세일 뿐,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호조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을 상쇄하고 있다. 실물 경제 데이터 (INDPRO, ICSA) 가 견조한 것은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님을 증명하며,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실질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Soft Landing' 시나리오가 실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장의 강세 흐름은 데이터의 지연이 아닌,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가격 발견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AI 테마와 반도체 사이클의 상향 전환이 가져올 미래 현금흐름의 증가를 현재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경기 순환과 다른 구조적 변화 (Productivity Shock) 를 반영한다. 연준의 관망세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만, 견조한 고용과 산업생산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금리 인하 지연이 장기 금리 상승을 유발하여 주가를 하락시킬 'Stagflation'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는다.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는 에너지 가격 안정을 통해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을 해소할 핵심 변수로 작용하여, 내러티브가 현실보다 앞서서 '완전한 정상화'를 가격에 반영한 것이다.

B (Market Wrong)

시장이 틀렸다. 시장의 강세 내러티브는 '고용 없는 회복'을 착각하여 '고용 없는 침체'의 전조로 오인하고 있으며, 연준의 관망세와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실물 경제 데이터 (INDPRO 102.551, ICSA 21.9 만 건) 가 견조해 보이지만, 이는 과거 고금리 기조의 지연된 영향 (Lag Effect) 이며, T10Y2Y 스프레드가 양수 구간을 유지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늦추거나 동결을 연장할 가능성을 높인다.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는 중동 분쟁 리스크 (호르무즈 해협 등) 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라는 현실적 리스크를 과소평가한 낙관론에 불과하며, 이는 유가 상승과 환율 불안정을 통해 기업 마진을 압박하여 결국 주가 하락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실물 경제의 모순 (견조한 고용 vs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 을 반영하지 못한 과대평가 상태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AI 테마와 협상 재개 기대감에 매몰되어, 연준이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을 이유로 금리 인하 시점을 계속 미룰 경우 발생할 '실질 금리 상승' 압력을 간과하고 있다. 견조한 고용 지표는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낮출 명분이 약해짐을 의미하며, 이는 장기 금리 (US10Y) 상승을 유발하여 성장주 (NDX) 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중동 분쟁 리스크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협상 재개 기대만으로 에너지 가격 안정을 확신하는 것은 위험하며,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재부추겨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강화할 것이다. 결국 '고용 없는 회복' 내러티브는 경기 침체 신호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안주하여,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축소와 기업 실적 하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Key Question: 향후 2 주 내로 T10Y2Y 국채 스프레드가 0bp 이하로 역전되거나, WTI 유가가 중동 분쟁 리스크로 인해 100 달러를 재상회하며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급등할 경우, 시장 내러티브는 무너질 것인가?

Tensions

시장 내러티브는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와 AI 실적 호조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하며 강세를 주도하고 있으나, 매크로 현실은 연준의 관망세와 중동 분쟁 리스크로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지연되어 금리 인하 시점이 불확실해지고 있음을 시사함.

0.70

Narrative: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AI 테마로 인한 금리 인하 지연 우려 상쇄
Reality: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과 연준 관망세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SPX NDX US10Y USDKRW

내러티브는 '고용 없는 회복'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이며 기술주 중심의 상승을 지속하고 있으나, 실물 데이터는 산업생산지수 확대와 견조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조하여 경기 침체 신호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 동결을 유지하는 모순적 상황이 존재함.

0.60

Narrative: 고용 지표 둔화를 금리 인하 신호로 해석하여 기술주 매수 확대
Reality: 견조한 고용과 산업생산 확대로 경기 침체 신호 부재 및 금리 인하 지연

NDX SPX US10Y

시장 참여자들은 협상 재개 낙관론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과 코스피 6000선 안착을 주도하고 있으나, 실제 거시 환경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분쟁 리스크가 상존하여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환율 불안정성이 잠재되어 있어 내러티브의 낙관론이 데이터상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음.

0.50

Narrative: 협상 재개 기대감으로 환율 하락과 증시 강세 지속
Reality: 중동 분쟁 리스크 상존으로 에너지 및 환율 변동성 잠재

USDKRW WTI SPX

Alternatives

GOLD - 금 (Gold) 상승

중동 분쟁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WTI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가 형성되고 있어, 연준의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사이에서 '안전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부각됩니다. 특히 금리는 실질 금리 상승 우려를 상쇄하는 헤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OIL - 원유 (Crude Oil) - 단기 공매도 또는 변동성 헤지

하락 (공매도 기회) 또는 변동성 확대

WTI 가 91.39 달러로 하락세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리스크가 '과소평가'된 상태이므로, 내러티브와 데이터의 괴리가 좁혀질 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에너지 가격 안정' 내러티브가 우세하므로,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될 경우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어 대안적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참고: 현재 판정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지지하므로, 오히려 에너지 섹주의 변동성 축소 수혜를 받는 '에너지 효율' 관련 자산이나, 유가 하락 수혜를 받는 '항공/운송' 섹주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 시 '금'이 가장 명확한 대안입니다.)

XLE - 에너지 섹터 ETF (Energy Sector)

보합 또는 하방 압력

내러티브는 협상 재개로 에너지 가격 안정을 보지만, 실제 데이터는 중동 리스크 상존으로 변동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러티브가 깨지고 리스크가 재부각될 경우 에너지 섹주는 급등할 수 있으나, 현재는 '에너지 가격 안정' 내러티브가 우세하므로 오히려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에너지 수요를 제한할 수 있어, 이 시점에서는 에너지 섹주의 변동성을 피하고 '금'이나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의 이동이 타당합니다. (수정: 현재 판정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지지하므로, 에너지 섹주는 수혜를 받기보다는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합한 대안은 '금'과 '채권'입니다.)

Eval Scores

PASS

Overall		4.25
Tension		4
Hypothesis		5
Evidence		5
Verdict Logic		3

Feedback: ## 종합 평가 이 파이프라인은 시장 내러티브와 매크로 현실 간의 모순을 매우 정교하게 포착하고, 이를 검증 가능한 가설로 전환하는 데 탁월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쇼핑 리스트'와 '가설 설계'는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그러나 **판단 (Verdict) 단계에서 인용된 구체적인 수치들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어, 논리적 결론 도출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 상세 분석 ### 1. tension_validity (4/5) - **강점**: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기대 vs 중동 분쟁 리스크 상존', '고용 없는 회복 내러티브 vs 견조한 고용 데이터' 등 현재 시장이 직면한 핵심 모순을 매우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내러티브와 현실의 대립 구도가 실재하며 투자 의사결정에 유의미합니다. - **약점**: '고용 없는 회복'이라는 용어가 다소 모호할 수 있으나, 맥락상 '고용 지표 둔화 (내러티브) vs 견조한 실업수당 청구 (현실)'로 해석되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투매', '폭락' 등 과장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2. hypothesis_quality (5/5) - **강점**: 가설 A(시장 옳음) 와 가설 B(시장 틀림) 가 완벽하게 대칭적입니다. 두 가설 모두 동일한 데이터 (INDPRO, ICSA, T10Y2Y, WTI) 를 사용하지만 해석의 방향성이 정반대이며, 각각 반증 가능한 명확한 조건 (Key Question) 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Soft Landing' 대 'Stagflation/Lag Effect'라는 논리 구조가 매우 탄탄합니다. ### 3. evidence_targeting (5/5) - **강점**: 수집할 데이터 (Shopping List) 가 가설 검증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T10Y2Y 스프레드, WTI 가격, NDX-US10Y 상관관계 등 핵심 변수를 정확히 선별했습니다. RAG 검색을 통해 역사적 사례 (중동 분쟁 시 연준 반응) 를 검증하려는 시도도 매우 훌륭합니다. ### 4. verdict_logic (3/5) **[감점 사유]** - **심각한 문제**: 결론 도출 과정에서 **수치적 모순과 근거 없는 계산**이 발견되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1. **수치 불일치 (Fact Check)**: `verdict.rationale` 에서 "VIX 가 -18.78% 하락한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VIX 지수는 변동성 지수이므로, "VIX 지수 자체가 18.78% 하락했다"는 표현은 가능하지만, 문맥상 "VIX 가 18.78%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의미로 오해할 소지가 큽니다. 더 큰 문제는 **WTI 가격**입니다. `verdict` 에서 "WTI 가 91.39 달러로 1 개월간 -5.01% 하락"이라고 했는데, 이는 현재 시점 (2024 년 중반 기준) 의 실제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WTI 는 80~90 달러 구간에서 등락했으나, 구체적인 '-5.01%'라는 정밀한 수치는 파이프라인 내부의 시뮬레이션 데이터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실시간 데이터'인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실제 데이터 소스와 다르면 **감점 기준에 따라 -2 점**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논리적 비약**: "NDX 와 US10Y 간의 상관관계 (Beta) 가 -0.0001 로 거의 0 에 가까워..."라는 주장은 매우 강력하지만, 6 개월 데이터 기준에서 성장주와 국채 금리의 상관관계가 0 에 수렴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 수치가 실제 데이터에서 도출된 것인지, 아니면 가설 A 를 지지하기 위해 과장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수치가 실제 데이터와 다르면 **evidence_targeting**과 **verdict_logic** 모두에서 감점 대상입니다. 3. **계산 근거 부재**: "SPX 가 7022.95 로 최고치를 경신"이라는 수치는 현재 (2024 년 5 월 기준) S&P500 이 5300~5400 선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입니다. (2024 년 5 월 기준 S&P500 은 약 5,300 포인트대입니다. 7,000 포인트는 2025 년 이후의 시나리오이거나, 데이터 소스의 오류입니다.) **이 수치가 실제 소스 데이터와 다르다면, 규칙에 따라 verdict_logic 차원에서 -2 점 감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점수는 이 수치가 '가상 시나리오'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두고 3 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이라면 1 점 이하로 평가해야 합니다. ## 개선 방안 (재시도 시 활용) 1. **수치 검증 및 출처 명시**: `verdict` 섹션에 인용된 모든 수치 (SPX 7022.95, WTI 91.39, VIX -18.78%, T10Y2Y 0.53bp 등) 가 **실제 수집된 데이터 (evidence_summary) 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cross-check 하십시오. 특히 S&P500 이 7000 포인트대라는 주장은 현재 시장 상황과 명백히 상충되므로, 데이터 소스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시나리오를 '미래 예측'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상관관계 해석의 신중함**: NDX 와 US10Y 의 상관관계가 -0.0001 이라는 극단적인 수치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이 수치가 도출된 기간 (6 개월) 동안의 특수한 시장 상황 (예: 금리 인하 기대와 AI 랠리가 동시에 작용한 경우) 을 명시하여, 이 수치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님을 설명해야 논리적 허점이 사라집니다. 3. **불확실성 표현 강화**: "가설 B 의 논리가 현재 데이터상 약화되었습니다"와 같은 표현 대신, "현재 데이터는 가설 B 의 핵심 전제 (스프레드 역전, 유가 급등) 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와 같이 **데이터의 부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다듬으십시오. 이는 '가설이 틀렸다'는 결론을 '가설의 조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대체하여 논리적 오류를 줄입니다. 4. **데이터 일관성 확인**: `data_shopping_list` 에서 요청한 데이터와 `verdict` 에서 인용된 데이터가 동일한 기간 (Period) 과 소스 (Source) 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price_history` 가 1 개월 데이터인데 `verdict` 에서는 6 개월 추이를 언급하는 등 불일치가 없어야 합니다. **결론**: 파이프라인의 구조와 논리 설계는 우수하나, **결론 도출 단계의 데이터 정확도 (Factuality)**가 가장 큰 약점입니다. 실제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하려면 인용된 수치들의 현실성 (Reality Check) 을 반드시 보정해야 합니다.

MORNING ANGLE 2026-04-16

시장의 뷰: 시장 참여자들은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호조, 그리고 AI 주도 생산성 혁명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S&P500 과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용 없는 회복'이 아닌 'Soft Landing' 시나리오가 실현되고 있다는 낙관론이 지배적이며, 지정학적 리스크는 협상 재개로 소멸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 시장 내러티브가 옳다. 현재 S&P500 과 나스닥의 최고치 경신은 '고용 없는 회복'이 아닌 'AI 주도 생산성 혁명'에 기반한 구조적 성장의 시작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연준의 금리 동결과 인플레이션 둔화 지연은 일시적인 관망세일 뿐, 미·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과 반도체 업황 호조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을 상쇄하고 있다. 실물 경제 데이터 (INDPRO, ICSA) 가 견조한 것은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님을 증명하며,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실질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 'Soft Landing' 시나리오가 실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시장의 강세 흐름은 데이터의 지연이 아닌, 미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정확한 가격 발견이다. [HIGH]

하지만 직전 판정 (가설 B) 에서 제시된 '고용 없는 침체' 전환 시나리오와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실질 금리 상승' 우려는 현재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에 의해 구체적으로 반박되었습니다. 첫째, 가설 B 의 핵심 붕괴 조건인 WTI 유가 100 달러 상회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WTI 가 91.39 달러로 1 개월간 -5.01% 하락하여 에너지 가격 안정 내러티브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둘째, T10Y2Y 국채 스프레드가 0.53bp 로 양수 구간을 유지하며 역전 (Inversion) 이 발생하지 않아 경기 침체 신호가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NDX 와 US10Y 간의 상관관계 (Beta) 가 -0.0001 로 거의 0 에 가까워, 금리 상승이 성장주에 치명타를 입히는 가설 B 의 논리가 현재 데이터상 약화되었습니다. SPX 가 7022.95 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VIX 가 -18.78% 하락한 것은 시장이 AI 테마와 실물 경제의 견조함 (INDPRO 102.551) 을 정확히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직전 판정의 무효화 조건 (기술주 랠리가 실물 지표와 괴리를 해소) 이 충족되었으며, 새로운 증거는 가설 A 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 SPX 비중 확대 및 NDX 적극 매수

무효화: WTI 유가가 2 주 연속 100 달러를 상회할 경우

대안: GOLD: 중동 분쟁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WTI 유가 하락으로 | OIL: WTI 가 91.39 달러로 하락세이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리스크가 | XLE: 내러티브는 협상 재개로 에너지 가격 안정을 보지만, 실제 데이터는 중동